

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CHURCH

6226 CAMDEN ST. OAKLAND, CA 94605 WEB WWW.OAKCC.ORG

주임신부 Fr. Dominic Kim 김도미니코(광근) (510) 562-3843

사목회장 Lay council chair 게토마스(성일) (510) 589-3311

thmschae@yahoo.com

사무실 (510) 553-9434 Fax (510) 639-4842

standrewoak@gmail.com

대건회관 (510) 562-8107

미사	주일 미사	오전 8:00 오전 11:00 영어미사 12시 30분	성사	고백 성사	미사 30분전	예비자 교리	주일 오전 9:30(106회의실)
	평일 미사	수,금,토 오전7:30 화,목 오후7:30		유아 세례	2주일 전 신청		
신심	성 시간	매월 첫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지속적인 성체조배	병자 성사 봉 성체	2주일 전 신청	통신교리 - 전화문의	
	성령 기도회	매주 토요일 미사 후 (대건회관)		혼배 성사	3개월 전 신청		
	향심 기도회	매주 목요일 오후 8시(107회의실)		매월 첫 금 9 PM ~ 토 7 AM			
	하느님의 뜻영성	매주 목요일 오후 8시(103회의실)					
주일 학교		매주일 오전 11:00-12:15	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40-12:50			



[제 1독서] 이사 60,1-6

[화답송] 시편72(71),1-2,7-8,10-11,12-13(©11참조)

◎ 주님,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경배하리이다.

- 하느님, 당신의 공정을 임금에게, 당신의 정의를 임금의 아들에게 배우소서. 그가 당신 백성을 정의로, 가련한 이들을 공정으로 다스리게 하소서. ◎
- 저 말이 다할 그때까지, 정의와 큰 평화가 그의 시대에 꽃피게 하소서. 그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땅 끝까지 다스리게 하소서. ◎
- 타르시스와 섬나라 임금들이 예물을 가져오고, 세바와 스바의 임금들이 조공을 바치게 하소서. 모든 임금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모든 민족들이 그를 섬기게 하소서. ◎
- 그는 하소연하는 불쌍한 이를, 도와줄 사람 없는 가련한 이를 구원하리이다. 약한 이, 불쌍한 이에게 동정을 베풀고, 불쌍한 이들의 목숨을 살려 주나이다. ◎

[제 2독서] 에페 3,2,3-5-6

[복음 환호송] 마태 2,2참조

◎ 알렐루야.

- 우리는 동방에서 주님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

[복음] 마태 2,1-12

성가	8시 미사	입당 487	봉헌 212 217	성체 165 167	파견 100
	11시 미사	입당 487	봉헌 212 217	성체 165 167	파견 100

주일 전례 봉사

구분	주님공현대축일(1월 5일)		주님세례축일(1월 12일)		연중 제2주일(1월 19일)	
	8시	교중미사	8시	교중미사	8시	교중미사
미사해설	이바로(명국)	권미카엘(창모)	임루카(승원)	전베로니카(진영)	정스텔라(애리)	이엘리사벳(자영)
제 1 독서	강요한(신호)	이베드로(기만)	최분도(환준)	심미카엘(태규)	김안드레아(찬곤)	정요한(석준)
제 2 독서	김안젤라(영선)	이골롬바(정연)	최분다(수영)	심헬레나(승화)	김글라라(순희)	손리디아(정옥)
보편지향기도	독서자		독서자		독서자	

오늘의 강론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나름대로의 소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소신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자랑스럽고, 사회에서는 존경을 받는 분위기였지만 지금은 소신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자랑스럽고, 자부심을 느끼기는커녕, 오히려 자칫 잘못하다가는 처자식 굶겨 죽이기 딱 알맞은 철딱서니 없는 무능한 사람으로 치부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올바른 소신을 펴며 살고 싶어도 이 눈치, 저 눈치를 보며 살다보면 결국은 스스로 주저앉고 마는 그런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소신을 가지고 살려고 하면 결국 큰 모험을 감수해야 하기에 쉽사리 나설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소신 없이 사는 삶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며, 마치 죽은 물고기처럼 한없이 하류로 밀리고 마는 그런 무기력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동방 박사 세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관측한 별의 징조를 굳게 믿었으며, 그 믿음 때문에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별의 인도를 따라 예루살렘까지 달려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념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오직 별의 인도를 따라 먼 여행 끝에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순간 그들이 믿고 따라온 별이 갑자기 사라져 버립니다. 그들의 소신과 신념에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에 크게 당황한 그들은 유대인의 왕인 헤로데를 찾아가 "유대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마태2,2)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듣고 헤로데 임금을 비롯하여 온 예루살렘이 **깜짝 놀랐다.**" 고 성경을 전하고 있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 는 속담이 말해 주듯이 먼 곳에서부터 구세주의 탄생을 감지하고 찾아 온 동방 박사들이 있었는가 하면 바로 코앞에서 벌어지는 일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어

리석은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현대 어째서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관심과 소신의 차이가 아닐까요? 동방의 박사들은 세상의 움직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나름대로 확고한 소신을 가지고 있었으나 헤로데를 비롯한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은 세상의 변화 따위는 관심이 없었고 오직 권력과 부와 출세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중요한 구원의 문제 따위에는 관심도 없었고 소신도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 의미에서는 **별빛을 따라 하느님께로 나가는 삶**입니다. 별이 구름에 가려 희미할 때도 있고, 그 별빛을 따라 살자면 어려움도 많고 고난을 받을 수 있으며, 때로 실망할 때도 많겠지만, 동방박사들처럼 하느님의 별빛만을 바라보며,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이 시대에 꼭 필요합니다. 아멘

2014년 신앙생활 지침
 하느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 주십니다.
 (코린1, 12,7)

새해의 소망

생명의 말씀

새해가 밝았습니다. 매일 똑같이 뜨고 지는 태양이지만 연초에 바라보는 태양은 그 의미가 다릅니다. 지난해의 아쉬움을 뒤로 하고, 새해의 소망이 담긴 마음으로 태양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연초에 일출을 보러 동해안으로 가곤 합니다. 제 자신을 돌아보고 하느님과 관계를 생각해 보며, 새해의 다짐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제가 연초의 일출에 집착하는 이유는 설악산 대청봉에서의 경험 때문입니다. 몇 번의 실패 끝에 산 정상에서 완벽한 일출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직 깜깜한 새벽녘에 서서히 온 세상을 붉게 물들이고, 바다 저편에서 장엄하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태양을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지켜보았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감동이라기보다 오히려 두렵고 떨리는 한편의 드라마였습니다. 대자연 앞에 나 자신이 한없이 작아지고 초라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들었고 저절로 무릎을 꿇어야 할 것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문득 모세가 시나이 산에서 하느님과 처음 만나는 장면이 생각났습니다. “ ‘이리 가까이 오지 마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모세는 하느님을 뵈기가 두려워 얼굴을 가렸다.” (탈출 3,5-6)

그것은 거룩함 즉 ‘성스러움’ 의 실제적인 체험이었습니다. 거룩함이란 절대자와 떨리는 마음으로 만나는 순간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룩하시도다’ 라는 말의 의미를 당신 앞에 한없이 부족하고 무력한 인간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마주하는 것’ 이라고 정의하곤 합니다.

교회는 새해에 첫 번째 맞이하는 주일을 ‘주님 공현 대축일’ 로 지냅니다.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께서 공적으로 당신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셨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주인으로 오셨음을 확인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요즘처럼 실증적인 것을 원하는 사람들의 요구를 하느님께서 들어주신 사건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동방박사 같은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매일 만나는 자연과 사람 안에서 주님의 모습을 볼 줄 알고, 하찮은 일에서 주님의 손길과 심오한 계획을 찾아내는 신앙의 눈을 뜰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초라하고 보잘 것없는 곳에 태어난 그 아기가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큰 빛이

라는 사실을 알아보는 동방 박사들처럼, 주위의 미소한 사람 안에서 하느님의 모습을 보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의 작은 일을 초월의 세계로 끌어 올려, 절대자의 숨은 의도를 찾아내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에서 초월의 세계로, 그리고 다시 현실로 돌아온 사람들의 삶은 사물을 그냥 바라보는 사람들의 삶과는 질적으로 다를 것입니다.

새해에는 이러한 신앙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 속에 빛이 될 수 있는 그런 한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물 상자를 열고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마태 2,11)

차원석 신부
노원성당 주임

* 1월의 성인/성녀

그레고리오, 고르ديو, 다니엘, 라이문도, 루치아노, 마르첼리노, 막시모, 바실리오, 베네딕타, 바울라, 발렌티노, 베르나르도, 베로니카, 브리지다, 발레리오 비아, 세라핌, 시메온, 수산나, 사비노(나), 살비오, 아벨, 아나스타시오, 아킬라, 아녜스, 안토니오 아빠스, 안젤라, 요한보스코, 에메렌시아, 에밀리아나(노), 엘리사벳 엔 시튼, 이타, 제노베타, 크리스티나, 클레멘스, 티모테오, 토마스 아퀴나스, 프리스 칼라,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녀 아녜스

아녜스 성녀는 3세기 후반 또는 4세기 초반 로마의 유명한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다. 어릴 때부터 신심이 깊었던 그녀는 열 세살 무렵의 어린나이에 순교하였다. 암브로시오 성인은 ‘유약한 나이에 보여준 그녀의 위대한 신앙의 힘을 높이 칭송하였다. 교회는 아녜스 성녀를 모진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증언하고자 정결을 지킨 순교자로 기억하고 있다. 성녀는 한 마리 양을 안고 있는 모습으로 자주 표현 되고 있다.

말씀의 향기

‘넛재 왕’ 이 몰려옵니다.

‘주님 공현 대축일’은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무작정 길을 떠난 축일입니다. 외로운 목동 때문에 베들레헴이 흥분에 싸였는데, 동방 박사들의 출현으로 떠들썩해졌습니다.

<넛재 왕의 전설>에서는 길을 떠난 사람들이 삼왕만이 아니라 깊은 인상을 줍니다. 오늘도 외로움 중에 ‘별’을 보고 구세주를 찾는 이들이 곳곳에서 길을 떠납니다.

저는 피정집에서 소임을 하다가 수유리에 있는 ‘베드로 무료 식당’에 파견되어 ‘길 떠난 많은 왕’들을 만났습니다. 인계를 하는 수녀님께서 식당 재정이 어려우니, 새해부터 밥값을 500원씩 받자고 했습니다.

깊게 생각해 준 수녀님의 마음이 고마웠지만, 100명이 넘게 오던 분들이 40명으로 줄었습니다. 하느님의 일을 하는 내가 500원에 매달려 있다는 자각이 밀려왔습니다. 성주간에 다시 무료로 식사를 드렸습니다. 이제는 100명이 넘어, 150명이 오십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숙자만 오시면 좋으련만, 혼자 먹기 외롭다고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분들이 별을 따라 사랑이 있는 곳에 오시는 것 같습니다.

품위 있게 식사를 하시도록 꽃도 꽃고, 식탁보도 깔았습니다. “비가 오는데, 오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하면, “점심을 주고 고맙다니, 우리가 감사해야지.” 하시면서 “잔치야, 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느님, 이러한 잔치로 우리를 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젊은 남자들이 저를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인사를 하면 “내가 무슨 너의 어머니야? 수녀님이지.”하고 고쳐 주었습니다. 또 점심을 먹고는 “성모님! 감사합니다.”하고 달려 나갑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나고 나니, 저를 “어머니!”하고 부르면서 “아이고 반가워라. 점심 잘 챙겨 먹어서 고마워.”하고 등을 두드려 주면서, 밝은 미소를 띄웁니다. 저는 이분들이 <넛재 왕의 전설>에 나오는 ‘넛재 왕’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는 목이 부러진 천사인형을 가져오는가 하면, 또 머릿장도 가져옵니다. 그래서 천사인형은 식당에, 머릿장은 제 사무실 앞에 놓고 꽃도 꽃고 화분도 놓았더니 “어머니, 꼭 은혜 갚을게요!” 합니다.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그렇게 원하셨던 당신의 “식탁 선교”(table mission)를 ‘베드로 무료 식당’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이 은혜였습니다.

20개월이 되었을 때, 갑자기 다른 곳으로 소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래오래 이곳에서 살 거라고 장담했었는데, 소임이 바뀌어 떠난다는 말을 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보름을 미루다가 결국 떠나는 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결같이 그림자는 말, 고맙다는 말도 하지 않고 편한데 가게 되어 다행이라고 합니다. 정말 이분들은 마음 깊은 ‘넛재 왕국의 사람들’입니다.

이 기회를 빌려 6지구 신부님들과 지구장 본당인 수유동성당에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삼왕이 오신 이날은 잔칫날이고, 삼왕을 맞는 베들레헴은 잔치이고, 사랑을 나누는 베드로 식당도 잔치입니다. 가난할수록 잔치가 맛이 있습니다.

홍성임 수녀
투스핑 포교 베네딕도 수녀회 서울 수도권

1월 교황님의 기도 지향(2014년)

일반 지향: 경제 발전

모든 사람과 모든 민족의 존엄을 존중하는 진정한 경제 발전이 증진되도록 기도합니다.

선교 지향: 그리스도인들의 일치

다양한 교파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께서 바라시는 일치를 향해 나아가도록 기도합니다.

가톨릭전례

참행복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참으로 중요한 질문이고 어려운 질문인데, 그 자체만으로는 해답이 없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과거-현재-미래의 연속성 안에서 살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묻는 것만으로는 올바른 해답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인간은 어디에서(인생의 근원) 와서, 어디로(인생의 목적) 가는가? 오늘 이 시간에는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간은 무엇을 갈망하는가?” “하느님께서서는 우리를 어디로 초대하고 계시는가?”

세상의 행복

인생의 목적은 행복입니다.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것에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행복에 대한 정의가 다릅니다. 무엇보다도 세상이 추구하는 행복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행복은 분명히 다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행복은 무엇보다도 ‘돈’입니다. 사람들은 재산으로 행복을 재고, 재물만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또한 ‘건강’이나 ‘가족’의 안녕을 최고의 가치로 꼽는 이들도 많습니다. 돈이나 건강, 가족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들임에는 틀림없지만, 이것이 인생의 최종 목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수회의 창설자이신 이냐시오 성인은 젊은 시절 야심만만한 군인이었습니다. 공을 세우기 위해서 전쟁에서 용감히 싸웠고, 부상을 입었습니다. 병원에서 요양을 하던 성인은 자신의 미래 모습에 대한 상상을 하며 시간을 보내곤 하셨습니다.

완쾌되면 다시 전쟁에 나가 공을 세우고, 진급을 하고, 사교계에 진출하여 귀부인을 사귀어 결혼을 하고, 봉급을 많이 받아서 좋은 집을 얻고... 이런 공상을 하면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뭔가 약간 부족한 감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얻은 다음에는?” 이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병원에 비치된 책을 한 권 꺼내서 읽게 되었습니다. 성인전이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성인들이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온갖 역경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면서 이냐시오 성인은 큰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성인들처럼 사는 모습을 상상하게 되면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얻은 다음에는?” 이라는 의문이 전혀 들지 않는 것입니다. 충만한

행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냐시오 성인은 세상의 재물과 명예와 쾌락을 버리고,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방향을 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참행복

- ‘참행복’은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의 핵심이다. 행복 선언은 바로 아브라함 이후 선택된 민족에게 주신 약속을 반복하신 것이다. 이 약속들은 더 이상 지상에서 누리는 기쁨에 그치지 않고 하늘나라를 차지하게 됨으로써 완성된다(가톨릭교회교리서 #1716항).

누구나 행복을 갈망합니다. 그런데 이 갈망을 우리 마음속에 넣어 주신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느님만이 행복을 향한 우리의 갈망을 채워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을 통해 성취되는 참행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 그들은 하느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옳은 일을 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은 행복하다. /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으며 터무니없는 말로 갖은 비난을 다 받게 되면 너희는 행복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받을 큰 상이 하늘에 마련되어 있다(마태 #5:3~12).

그런데 하느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참된 행복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마치 목마른 사람이 소금물이나 설탕물을 들이키는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참행복의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 와서 마셔라.” (요한 #7:37)

주님, 어떻게 당신을 찾아야 합니까? 당신을 찾는 것이 행복한 삶을 찾는 것이오니, 제 영혼이 살도록 당신을 찾게 해주십시오. 제 육체는 제 영혼으로 인해 살고 제 영혼은 당신으로 인해 살기 때문입니다(성 아우구스티노).

강신모 프란치스코 신부/의정부교구 선교사목국장

- 성 정아상 바오로 트리아벨리 안인선주교의 -

주임신부 Fr. Thaddeus Kim 김타데오(선류) (925) 600-0188/사무실 (925) 600-0177

Pleasanton Middle School, Multi-Purpose Room

5001 Case Ave. Pleasanton, CA 94566

◆ 미사 안내 : 매주 주일 아침 9시/수 & 토요일 아침 9시 30분, 목요일 저녁 8시

지난주 우리의 정성

날짜	지향	봉헌자
1월 5일 일	연 김중화	정데레사(혜경)
	연 이성원	정데레사(혜경)
	연 정벤자민(대업)	정데레사(혜경)
	연 이마르코(재상)	가족
	연 이마르코(재상)	김시몬(원덕)
	연 윤바오로(광의)	가족
	연 박마리아(희원)	가족
	연 박돈보스코	박데레사
	연 연옥영훈	안마리아(은순)
	연 박토마(정영)	김시몬(원덕)
	연 서라이문도	서데레사
	생 미미헬렌페리 가정	김엘리사벳
	생 김에드워드(지성)	김케네스 가정
	생 5구역원 가정	5구역
	생 자녀들 가정	남수산나
	생 김폴/티아도라	김시몬(원덕)
	생 김다윗/김마르코가정	김시몬(원덕)
	생 박세레나(동신)	서데레사
1월 7일 화	연 최베드로(휘중)	가족

< 주일 헌금과 참여인원 >

구분	8시	11시	영어미사	합계
미사참석인원	72	259	-	331
헌금	\$527	\$1,401	-	\$1,928

< 교무금 > \$3,220

이정연(1/14) 강수영(11-12) 최은용(12)
손영호(1-12) 유인웅(1-12) 이주황(1-12)
김승희(1-2/14) 이건용(1/14) 구창희(1/14)
박호영(1/14)

< 성소후원금 > \$260

박호영(1/14) 채성일(1-12/14)

< Bishop's Appeal > -

< 감사헌금 > 별사탕밴드 \$100 김관용 \$100

< 성탄성야헌금 > \$575

< 성탄구유예물 > \$2,007

< 성탄 낮미사 헌금 > \$2,180

< Raffle 판매 이익금 > \$828

< 지붕공사 & 소방설비 공사 헌금>

* 목표액 \$48,000
* 총 약정 \$55,550
* 총 납입 \$54,950

< 건축헌금 > 목표액 \$300,000

* 약정액 \$311,515.28(186 세대 약정)
* 봉헌액 \$292,945.28
* 지난주 봉헌 : 익명 \$600

~~~~ 오늘의 간식은 정애리 스텔라 가정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

2014년 신앙생활 지침 : 하느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 주십니다.(코린1, 12,7)

- 공 제 사 양 -

- ◆ 여행자를 위한 안수기도 : 오늘 미사 중
- ◆ 2014년도 교무금을 약정하시어 친교실에 비치되어 있는 박스에 넣어 주십시오.
- ◆ 신임 사목위원 및 단체장/구역장 임명식  
1월 12일(다음 주일) 교중미사 중
- ◆ 2차 헌금 안내  
1월 19일 : Seminary(신학교) 후원
- ◆ 예결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단체들은 내년 예산  
작성을 위해 총무에게 오늘 중으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 ◆ 모임
  - \* 뜨락회(청년모임) : 매주 교중미사 후 202호실
  - \* 구역장회의 : 1월 12일(다음주일) 교중미사 후 107
  - \* 서예교실 : 1월 12일(다음주일) 교중미사 후 106
  - \* 독서클럽 : 1월 12일(다음주일) 교중미사 후 103
  - 이번 달 도서 : 아주 특별한 순간(Fr. 안토니오)
- ◆ 독감예방 접종  
1월 5일(오늘) 아침미사/교중미사 후 친교실  
문의 : 전진영 베로니카 510-229-2464
- ◆ 탁구동호회 주최 탁구대회  
1월 5일(오늘) 교중미사 후 친교실
- ◆ Hair Cut 봉사자께서 Donation 받으신 \$120을  
트라이밸리 성당 성전마련 기금에 봉헌해 주셨습니다.

- ◆ 북가주 제 25차 ME 첫주말 공지  
일정 : 2014년 1월 24일 - 1월 26일까지(2박 3일)  
장소 : Hilton Garden Inn, Hayward CA  
문의 : 한요셉 415-810-3175/한헬레나 925-285-2038
- ◆ 서중부 남성 제 11차 영어권 꾸르실료 봉사자 모집  
일시 : 2014년 6월 26일 ~ 29일  
장소 : Holy Redeemer Center, Oakland  
\* 북가주 지역에서 처음으로 개최하는 영어권 꾸르실료  
입니다. 남성 꾸르실리스따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합니다.  
문의 : 이창용 레이몬드 510-688-0157
- ◆ 2014년도 간식(떡) 신청  
한 가정이 하면 \$300, 두 가정이 같이 하면 \$150씩  
신청 : 성모회장 510-914-0709  
\* 2013년도에 간식을 제공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  
드립니다.
- ◆ 세금보고 자료를 신청하실 분들은 사무실에 오셔서  
신청하여 주십시오.

**주일학교 소식**

- 2014년 1월 19일 : 개학(방학동안 영어미사 없습니다.)